



기업가 정신, 안정적인 목장경영 이끈다.

2015년 여성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심화과정) 개최결과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이명규)는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대전 소재 선사인 호텔에서 2015년 여성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심화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기본과정 못지않게 심화과정에서도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교육생들의 학구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더위로 젖소도 사람도 힘든 시기에 목장일을 접어두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목장에 도움이 되고자 참가한 교육인 만큼, 열심히 배우



고 돌아가서 젓소들에게 다시 보답하기를 바란다”는 이명규 여성분과위원장의 입교식 인사말로 교육이 시작됐다.

이번 목장경영전문화교육 심화과정에서는 지난 기본과정에 이어, 체계적인 목장경영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법, 사양관리, 질

병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경영분석시간에는 작년도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보면서 목장현황을 다시금 파악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사소한 비용도 목장 수익성과 생산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힐링 소통’ 시간을 통해 여성낙농

인민들의 고충과 애환을 터놓고 말하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 이흥구 건국대학교 교수의 ‘안티우유 대응 교육’도 이어졌다. 이흥구 교수는 안티밀크 주장의 모순점을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안티밀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낙농인 개개인이 우유홍보대사가 되어 우리아우유의 우수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우유수급, 무허가 축사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교육의 마지막날 행사장을 찾은 손정렬 협회장은 “목장경영 악재들이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의지와 역량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에 참여한 전원이 전문경영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



을 전했다. 이어서 협회장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해 교육생들과 우유수급 안정대책, 가축사육거리제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등 낙농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생들은 “지금까지는 목장수의 누수가 어디서 생기는지 파악이 안됐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다.”, “이번 교육은 목장경영뿐만 아니라 가게 살림 운영에도 유익한 내용이였다”, “생산감축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산유제품 홍보, 안티밀크 대응 등 소비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회원농가들의 목장경영능력 향상과 기업가적 정신함양을 위해 추진되는 목장경영전문화교육은 보다 낙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